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퍼포먼스

지난 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첫 간부회의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해양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촉진

김성수·김만기도의원, 조례안 공동발의  
 “도내 우수 해양치유자원 적극 활용하자”  
 도민 건강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의 탁월한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도의회에서 발의돼 도내 해양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과 김만기 의원(고창2)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바탕으로 이에 맞춘 해양치유서비스 보급과 관련 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키 위해 제안됐다.



김성수 도의원 김만기 도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프

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고창 부안 군산 등에 갯벌, 소금, 해조류 등과 같은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 및 인력 등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제 39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 비공개 전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가는 일정에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달 말씀한 것처럼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고도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졌듯이 이번 출석에도 당 지도부가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 안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뉴시스



공개적으로 출석할 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묻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등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출석일자가 이달 10일로 잡힌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그날 출석 날짜를 조율해왔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출석당일 본인과 당직자들이 같이 갈 거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설 연휴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충분한 입장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뉴시스

# 전주 종합경기장 컨벤션 센터 건립 ‘벤치마킹’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수원 컨벤션센터 등 찾아  
 건립·운영 상황 점검



합경기장내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수원 컨벤션센터와 송도 컨벤션사를 방문한 의원들은 운영 실태를 분석 및 위치 여건과 내부 시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전주에 맞는 컨벤션센터 건립 방법을 모색했다.  
 박선진 도시건설위원장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시정, 낭비 없는 시정을 위해 더욱 철저히 연구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기준 시설면적 변경 ‘순풍’

심부건 완주군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 통해 대안제시... 긍정 검토 진행 중

완주군의회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봉동·용진)은 지난 6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기준을 기존 아동현원에서 시설면적으로 변경 적용하기 위한 긍정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긍정적 논의가 시작된 계기 마련은 지난해 11월 심부건 위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냉·난방비 과다, 급식조리사 부제 시 대체조리사 지원 등과 같은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서 시작됐다.



심부건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에 난방비로 적정하는 어린이집을 생각하면 변경기준 적용이 시급하지만,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군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아동급식 지원과 조리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도 시급한 만큼, 해결책 마련

을 위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작이자 당연한 국가·사회적 책무로 이번 변화의 시작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 국회, 임시회 소집 공고

오늘 오후 2시... 민주, 단독 요구  
 안보위기 상황 현안질문 등 이유

국회가 9일 오후 2시 1월 임시회를 소집했다. 야당 단독 요구에 따른 임시국회 일정이다.  
 국회는 6일 “헌법 47조 1항에 의해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402회 국회(임시회)를 9일 오후 2시에 국회의 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민주당은 1월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집 이유는 긴급한 민생 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 현안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등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 상황 긴급 현안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2인 명의로 안보·경제 관련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도 냈다. 각각 9일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참사 관련, 10일 경제위기 관련 일정으로 요구됐다.  
 그간 민주당은 안보·경제 관련 긴급 현안질문, 국방위원회 차원 청문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민생 법안 논의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요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현안질문, 민생 법안 처리 등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임시회 소집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공백이 생기면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구서 제출 후 같은 당 김기에 원내 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용 1월 임시회 소집 요구”,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특권 패자를 위한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 왼쪽)이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 “고향발전 기여 매우 기쁘다”

민주 박용진 의원,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 을)이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지난 6일 장수군은 최훈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수군 범민련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하고 제20대, 21대 국회의원(서울 강북구 을)으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고향인 장수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마음을 곁에 살이고 있다”면서 “이번 고향 사랑기부금을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를 제한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등에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인 기금은 지역 문화 예술 지원, 복지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최훈식 군수는 “기부를 통해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기부로 많은 출향인들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답례품으로 △장수사랑상품권 △사과 △한우 △오미자 △건나물세트 △고소애반달 △꿀 △구운소금 △홍삼 △흑두라지청 △삼플물고기 △떡볶이세트 △원장 △쌀 △건포도 버섯 △사과 토마토당근 가공식품 등 장수군의 특색을 담은 20개 품목을 선정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민주 신영대 의원, 3년 연속 ‘국리민복상’ 수상



지난 6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이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상을 이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2022 국정감사에서의 신 의원은 새 정부의 산업, 에너지, 통상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공리,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로 위축된 산업현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

에 공감하며 정부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폈다.  
 이에 같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선배 동료 위원들은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다양한 시각으로 폭넓게 다뤘다”고 평가했고, 지역 언론은 “여야를 통틀어 상임위 아젠다를 주도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부와 단호하게 맞섰다”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신 의원은 “오랜전통의 국정감사 I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해 뿌듯하고 앞으로도 민생을 세심히 살피라는 명령으로 여기겠다”며 소회를 전하고, 이어 “모든 의정활동에서 질타보다는 대안 제시, 갈등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